해남군 빈집재생 인구 유입 효과 톡톡

올해까지 80동 리모델링
귀촌·귀농인 등 5년간 무상 제공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 40가구 정착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 주택.

해남군이 '빈집 재생' 사업으로 인구유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빈집 재생은 단순 정비를 넘어 지역활력 회복과 인구유입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71동의 빈집 리모델링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9동의 추가 정비가 예정돼 있다. 연말까지 총 80동의 빈집 재생이 완료될 전망이다.

정비된 빈집은 귀농·귀촌인, 청년 농업인, 농촌유학 가족 등에게 최장 5년간 무상 제공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월 1만원 임대형 주택도 공급이 시작됐다.

특히 해남군은 빈집을 단순 철거나 관리의 대상이 아닌 정착을 위한 주택 자원으로 전환했다.

임대형 리모델링 주택은 최대 5000만원, 자가거주형 리모델링 및 철거 후 신축형 주택은 최대 3000만원의 정비비를 지원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정주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 교육과 주거를 함께 고려한 해남군 특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형 빈집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40가구가 이주·정착했다. 인구유입은 물론 농촌 학교의 존립과 교육 공동체 활성화로 확대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북평면에서는 빈집 5동을 마을호텔 형태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주민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며 관광객과 관계인구를 위한 숙박공간으로 조성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전 읍·면을 대상으로 빈집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1235건의 빈집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남군 빈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해당 자료는 향후 정비 대상지 선정과 향후 빈집은행 운영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내년에는 빈집 매물 정보 제공과 민간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촌 빈집은행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과 외부 수요자 간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실거주 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빈집은 더 이상 방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을 불러들이는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정주 기반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해남'을 실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받은 장학금 되돌려준 영암군 공무원

익명 인재육성 200만원 기부

영암군지역사회가 전달한 장학금으로 공부해 군민과 국민의 봉사자가 돼 공직자로 근무하고 있는 익명을 요구한 영암군의 한 공무원이, 지난 7일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에 인재육성기금 200만원을 기부했다.

고마움을 다시 장학금 기부로 환원한 이 공무원은 영암읍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때까지 과학 인재, 성적우수자 등으로 네 차례 장학금을 받았다.

장학금을 받던 당시, 영암군민의 관심과 사랑을 언젠가는 다시 지역사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이 공직자는 부모님과 약속했다고 전했다.

2020년대 초반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어릴 적 다짐을 잊지 않았던 이 공무원은, 이번에 인재육성기금으로 내놓으며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

영암군미래교육재단 이사장인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민의 봉사자인 공직자가 모범을 보여줘서 더 뜻깊었다"라며 장학금이 장학금을 낳는 선순환구조를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 공직자의 선행을 널리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영광 백수해안 관광명소화 사업 기재부 심사 최종 통과

사업비 410억 남부권 관광개발
숙박시설 등 체류형 관광지 조성

영광 백수해안 관광명소화 사업이 정부 심사를 통과해 속도를 내고 있다.

영광군 군민들의 염원이었던 '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적격성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기재부 적격성 심사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셨으나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자료 보완과 사업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관계기관 협의에 총력을 기울여 최종 심사를 통과했었다.

이 사업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두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401억여원에 달한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첫 번째 프로젝트로 현재 추진 중인 '종교순례 테마관광 명소화 사업(총사업비 188억원)'과 같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재원 분담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관광 인프라 조성사업이다.

백수해안도로를 중심으로 경관자원과 문화콘텐츠를 집약·강화하는 사업으로 ▲해안 경관 인프라 확충 ▲노을전시관 리모델링 및 미디어파사드 조성 ▲칠산타워와 목도를 잇는 미디어라이트 연출 등을 통해 영광군을 체류형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입이 기대된다. 이는 현재 대비 약 2.5배 증가한 수치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음식·교통·기념품 소비 등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연간 3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직간접적으로 7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또 미디어파사드와 라이트쇼 등 첨단 콘텐츠를 활용한 야간경관 조성으로, 기존의 당일치기 관광에서 벗어나 1박 이상 머무르는 체류형 야간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

완도군, 여성 어업인 500명 건강검진비 지원

51세 이상 대상…1인 최대 20만원

완도군이 51세 이상 여성 어업인을 대상으로 특화 건강검진비 전액을 지원한다.

여성 어업인은 근골격계에 부담이 큰 작업군으로 살림·육아 등 가사활동까지 이중 노동을 맡아 특수 건강검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군은 여성 어업인 500명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51세 이상 여성 가운데 어업 경영체에 등록됐거나 맨손·나잠어업 종사자 등이다.

지난해 특화 건강검진을 지원받았거나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된다.

건강검진 비용은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다. 자부담 없이 지원된다.

검진을 희망하는 여성 어업인은 12월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진료기관은 대성병원, 금일마취통증의학의원 등이다. 섬지역 여성 어업인을 위해 19일(노화, 보길), 20일(소안) 이동 검진 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여성 어업인들이 어로작업과 가사노동으로 인해 힘들어 한다"라며 "제때 건강검진을 받아 질병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목포 김 가공 공장.

목포 상반기 김 수출 8126만 달러…전국 1위

지난해 같은 기간 비해 6% 증가

목포시는 올해 상반기 김 수출액이 8126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7667만 달러에 비해 6%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중 수출 1위이다.

상반기 목포시 전체 수출액은 9216만달러로 이 중 김 수출이 88%를 차지하며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김 수출액 1억3308만 달러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며 김 수출액 전국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시는 김 산업을 포함한 수산식품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총 1137억원을 투입, 연면적 4만6612㎡ 규모의 수산식품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마른김 유통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출 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 마른김거래소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의 김이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인정받고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앞으로 수산식품수출단지와 마른김거래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목포는 명실상부한 수출 전략형 수산식품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신안군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신안군이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주민세 개인분 1만9817건, 2억 1700만원을 부과하고 주민세를 신고받고 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신안군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 1만 1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정해지며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이다.

특히 2023년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어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됐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원으로 차등 부과되며 연면적 세액은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만 1㎡당 250원의 세액으로 기본세액과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안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대상자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현금 자동입출금 세금납부 전용계좌, 신용카드로 내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